비구니회관 20주년 법석, 10월 18일 봉행

4월 21일 원로회의서 사업 · 활동보고

노후시설 보수불사 막바지
자료 전시 · 공로패 수여 등
사찰음식문화센터도 개원


전국비구니회는 4월 21일 제8차 원로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올해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을 맞아 당시 원로 스님들의 노고와 원력에 감사를 전하는 기념법석이 10월 18일 마련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21일 제8차 원로회의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활동 및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비구니회 활동보고에 이어 운영위원회(위원장 상덕)와 사회복지법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활동보고와 안건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올 10월 18일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보고하고 자료전시를 비롯해 공로 · 공헌감사패 전달 등 계획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현재 회관건립 당시부터 축적된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20년 전 건립불사 당시 어른 스님들의 원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기념법석에서는 당시 자료들을 정리해 전시함으로써 그 원력을 널리 알리고, 도제 스님들에게 재차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는 제1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온 노후화된 회관 보수불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한해 동안 회관 내 전반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민선방과 어린이법당, 불교대학 강의실 등을 확보했으며, 법룡선방을 비롯해 회관 지하 1층~지상 3층 바닥재 교체 및 벽면 도장공사 등을 완료했다. 이밖에도 공양간 보수 및 각 공간의 시설물 보완,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조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보수를 완비한 상태다.

원로회 의장 수현 스님은 "봄이 시작되고 정치도 새로 시작되는 시기"라며 "전국비구니회가 그동안 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더 잘하는 듯 하다. 앞으로도 백지 한 장 마주 드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젊은 시절 불교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어른 스님들께서 지금도 비구니회를 돕기 위해 힘든 걸음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법답게 잘 하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모든 비구니회 운영하는 데 마지막 증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제12대 집행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소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때 어른 스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료와 후배 스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며 "올해 20년 된 건물을 보면서 어른 스님들의 원력과 노고를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사찰음식문화센터 개원식도 진행했다. 센터는 전국비구니회관 지상 1층에 위치했던 가사원이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사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향후 사찰음식 활성화를 위한 강의 및 교육연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승 확보, 여타 종단과 협력을"

불교청년회 등 불교단체
군승확보 촉구 성명 발표

대한불교청년회를 비롯한 불교단체들이 군승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불련 총동문회 등은 4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계종에 조속한 군승 확보와 군포교에 여타 종단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올해 군종특별교구가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은 군승 파송 인원 18명 가운데 40%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7명만 선발했다는 소식이 전하고 있다"면서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38세 미만에 사미계를 수계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도 출가자 급감에 따라 군 포교 정예인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군승 수급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 법당 건립과 포교 지원에 나섰던 천태종의 군종 파송 요구, 진각종의 군승 문제 관련 성명 발표 등이 있었지만 "불교 군종을 관할하는 조계종이 독선을 부린 결과 이러한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군승 독신 예외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군승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작금의 군승 수급 문제는 불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며, 조계종이 완수하지 못하면 다른 종단이나 재가교역자라도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조계종이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부족한 군승 11명을 자체 파송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여타 종단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포교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군승은 불교학 전공자를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급과 자질문제를 해결하고, 해당학과가 설치된 금강대(천태종)와 위덕대(진각종)도 사관후보생 양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면서 "소득과 계급을 가진 직업군인인 군승장교는 비록 종교관련 업무를 수행한다하더라도 출가수행자의 계율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소임임으로, 금후 군승의 신분규정과 선발기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의 '군선교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이관해 범불교적인 참여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취임일성 '혁신'

4월21일 제주 혜관정사서
사부대중 1000여명 참석



"법화종 제20대 총무원 집행부는 '참회'와 '승가정신 회복'을 통한 변혁과 혁신을 기조로 소통과 원융살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단변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취임 첫 일성으로 승가정신 회복을 통한 종단 혁신을 선언했다.

법화종은 4월 21일 제주 혜관정사에서 제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취임법회는 고불문을 시작으로 법화종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종정도선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과 불교계 각 종단 스님, 정관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종도들의 열망과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불조(佛祖)에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관효 스님은 이날 변혁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도제양성 △포교원 재가동을 위한 포교원장 선출 △대중공의를 토대로 한 종헌종법 전면 제 · 개정 △냉담종도 및 억울한 피해를 입은 종도 구제절차 추진 △교구 해산의 피해를 입은 지역교구 복원 △안정사의 종단 본산으로서 기능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적폐세력을 향해 단호한 대처는 물론, 누구든지 종헌종법을 유린하고 악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보완에 나서는 한편, 각 교구를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해 종무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의원 일면 스님,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 등 각 종단 스님들도 축사를 통해 종단의 앞길에 격려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관효 스님을 중심으로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넘어 다시 한 번 종단 중흥의 기틀이 튼튼히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종도대중이 일심으로 화합해 선대조사들이 이룩한 업적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도제양성과 불법홍포는 물론, 대사회적 역할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4월 20일 정식개원

4월 26일까지 간화선대법회
평일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재가자들의 한국 선 대중화 총 본산인 경북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공식 개원했다. 2015년 전국선원수좌회의 고우 스님과 적명 스님 등 한국 대표 선승들이 함께 모여 발원한 후 7년 만에 이룬 쾌거다.

개원식 겸 제 4회 간화선대법회 개회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과 간화선대법회를 계기로 위기에 빠진 한국 간화선이 인류와 세계에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선원장 각산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명상마을 에서는 전세계 최고의 유명 선지식의 가르침과 한국 선지식들에게 인가받은 가르침을 모두 통습한 최고의 가르침을 전수할 것"이라고 힘찬 어조로 밝혔다.

문경=김주일 기자

다시 만난 연등회,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봉축위, 올 연등회 일정 확정
연등행렬 시민참여단도 운영

코로나19 이후 3년간 대폭 축소됐던 연등회가 올 부처님오신날 재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연등행렬도 올해는 참가단체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면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2일 올해 연등회 일정을 공개했다. 연등회 메인법석인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이어지며, 대면으로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법석이 될 전망이다.

올해 연등회는 전통등전시회와 연등법회, 연등행렬과 회향한마당, 전통문화마당 · 공연마당, 연등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 연등행렬은 4월 29일 진행되며 참가단체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